

유소연-박성현, 세계랭킹 1위자리 놓고 격돌

19일 개막 '스윙잉 스퀘츠 LPGA 타이완 챔피언십' 경쟁... 주요 타이틀 경쟁 앞설 수 있는 기회

오로지 한 명에게만 허락된 골프여제의 자리를 두고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과 2위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골프여제의 자리를 두고 또 한 번 격돌한다.

'아시아 스윙' 두 번째 대회인 '스윙잉 스퀘츠 LPGA 타이완 챔피언십'이 19일부터 나흘 동안 타이완 미라미(KCC(파72))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17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유소연과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어렵게 우승을 놓치며 1위 등극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 박성현이 재대결을 펼친다.

유소연은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를 했지만 박성현이 준우승에 머물며 가까스로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둘의 격차는 지난해 0.78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추격하는 박성현으로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경주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

반면 지기는 입증인 유소연은 경쟁자인 박성현이 상위권에 들고 자신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들일 경우 1위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세계 1위 자리가 18주 만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올 시즌 L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5개 대회를 남겨 놓고 있다.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각종 타이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소연(왼쪽)과 박성현이 19일부터 나흘 동안 타이완 미라미(KCC(파72))에서 펼쳐지는 '스윙잉 스퀘츠 LPGA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또 한 번 격돌한다.

을 손에 넣기 위해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도 유소연과 박성현이 있다.

3파전의 한 축인 렉시 톰슨(미국)은 이번 대회 불참한다.

유소연은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53포인트

트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역시도 박성현(142포인트)에게 11점 차로 쫓기고 있다.

반면 상급랭킹에서는 박성현이 209만 2623달러로 1위에 올라 있다.

2위 유소연(182만1959달러)은 격차가 벌

이지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성현은 올해 신인들 가운데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일찌감치 신인왕 등극을 기정사실화했다.

상급랭킹은 물론 평균타수 부문에서도 선두였던 톰슨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라 있다.

올해의 선수 부문도 1위 탈환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민약 박성현이 4개 부문을 석권한다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무려 39년 만에 대업을 이루게 된다.

'슈퍼투키'에서 세계 여자골프 '대세'가 된다.

박성현으로서는 앞으로 남은 매 대회가 역사적인 시즌을 위한 분수령이고 승부처인 셈이다.

유소연과 박성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자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올 시즌 준우승 5회와 3위 2회로 번번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인지(23)는 마수같이 우승을 버리고 있다.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지만 지난 시즌 투어를 양분하시며 한 에리아 쭈터누간(태국)과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명예회복을 노린다.

아시아 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온 양희영(28·PNS)과 김보주(22·롯데)도 아시아스윙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국내 복귀 후 아직 우승이 없는 디랜딩 챔피언 장하나(25·BC카드)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뉴시스

EXID, 내달 7일 네 번째 미니 앨범 '풀 문' 발표

걸그룹 '엑스아이디(EXID)'가 7개월 만에 컴백한다.



지난해 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확진 판정을 받고 잠시 활동을 쉬고 있던

멤버 솔지가 녹음에 참여했다.

17일 소속사 바나킥처엔터테인먼트는 EXID는 오는 11월 7일 네 번째 미니 앨범 '풀 문(Full Moon)'을 발표한다.

바나킥처는 "미니앨범 명 '풀 문(Full Moon)'답게 짝 짝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솔지의 활동 여부에 관해서는 "솔지가 녹음에는 참여했지만 아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몸 상태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는 발매일과 함께 개기일식의 과정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매한 미니 앨범 '이클립스(Eclipse)'에서 이번 미니 앨범 '풀문'이 되는 과정을 담았다.

바나킥처 관계자는 "월식이라는 뜻의 '이클립스'는 멤버 솔지의 반자리로 인해 잠시 4인조로 재구성된 EXID를 표현했다면서 "이번 앨범에는 솔지가 녹음에 참여해 음악적 완성도로 빛을 발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오연서, tvN '화유기' 출연 확정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인 tvN 새 토·일 드라마 '화유기'(극본 홍정은·홍미란 연출 박홍균)에 배우 오연서가 여주인공 '진선미'로 출연을 확정했다.

'화유기'는 고대소설 '서유기'를 현대물로 재창조한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이다.

퇴폐적인 불한당이자 악동 요괴인 '순오공'과 매력적인 셀러브리티이자 흰 소 요괴인 '우미왕'이 서로 대립하며, 2017년 악귀가 창궐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참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진선미는 '서유기'의 '삼장법사'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흥가 폐가, 뿔 차려도 망하는 상가 등을 전문으로 사들이며 괴짜는 큰빛 부동산 대표이자 미모와 재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과거 악연인 순오공과 우미왕을 다시 만나면서 기묘한 삼각관계에 놓인다.

제작진은 "진선미는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캐릭터"라며 "'화유기' 속 모든 요괴가 찾아 해매는 인물로 극 중 중요한 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남주인공이자 과거 악연인 오공과 우미왕 사이에서 독특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여주인공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하는 작품마다 시청자를 사로잡아 온 배우 오연서가 '화유기'에서는 지금껏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폭발적인 매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화유기'는 세 주인공 중 우미왕에 배우 차승원이 이미 출연을 확정했고, 이날 오연서가 진선미를 껴차면서 순오공만 남긴 상태다. 순오공에는 오는 31일 전역하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추락한 FIFA랭킹' 韓축구, 독일·스페인과 한 조 묶일수도

한국, 4번 포트 확정... '죽음의 조' 편성될 위험 높아

한국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2위로 추락했다.

처음으로 중국(57위)에 추월당하며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에서 '죽음의 조'에 편성될 위험이 높아졌다.

한국은 16일(한국시간) 발표된 FIFA 랭킹에서 62위로 떨어져 1993년 랭킹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보다 아래에 머물렀다. 무려 11계단이나 하락했다.

자존심을 구긴 것은 물론이고 순위 하락으로 인해 내년 러시아월드컵에서 데미지를 입게 됐다. 본선 조 추첨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은 대륙별로 포트(그룹)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 FIFA 랭킹 순으로 그룹을

묶는다. 10월 FIFA 랭킹이 기준이다.

랭킹이 절대적인 존재감을 뽐내게 된 셈이다.

FIFA는 이달 랭킹을 통해 32개 참가국을 순서대로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나눈다.

한 포트는 8개국으로 1번 포트가 북미이다.

포트별로 한 국가씩 모여 4개국이 한 조를 이룬다. 총 8개 조다.

유럽을 제외하고 같은 대륙의 나라가 한 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은 유지된다.

아직 본선 진출 32개국이 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1번 포트는 정해졌다. 개최국 러시아를 포함해 FIFA 랭킹 1~7위가 북미이다.

독일(1위), 브라질(2위), 포르투갈(3위), 아르헨티나(4위), 벨기에(5위), 폴란드(6위), 프랑스(7위)다. 경쟁한 강호들이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23개국 중 랭킹이 한국보다 아래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63위), 러시아(65위)밖에 없다.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국가 중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곳이지만 4번 포트에서 탈출할 순 없다.

3번 포트에 들어갔다면 4번 포트를 통해 1승 제물이라도 기대했겠지만 한국이 타팀들의 유력한 1승 제물이다.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 두 팀과 한 조에 속할 위험이 크다.

무적한대 스페인과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각각 8위, 12위로 2번 포트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아직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이탈

리아(15위)도 2번 포트 대상이다.

사실상 톱시드나 다름없는 전력을 자랑하는 스페인 잉글랜드와 한 조에 속한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독일·스페인', '브라질·잉글랜드', '아르헨티나·스페인', '포르투갈·잉글랜드' 등 상상만 해도 끔찍한 조합들이다.

이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일 가능성이 커진 건 한국 축구가 자초한 일이다.

아시아 최종예선을 4승3패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어렵게 통과한데다 최근 유럽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며 랭킹 점수를 많이 깎았다.

60위대로 떨어지면서 본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상대와 평가전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중한 평가전 기회를 약한 팀과 하려는 곳은 별로 없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